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11. 16.(목) 11:00, 배포 2023. 11. 16.(목) 06:00
(지면) 2023. 11. 17.(금) 조간

정밀조사 확대로 연안침식 대응 역량 높인다

- 기존 6개소에 이어 화성 궁평리 등 6개소 신규 선정 및 조사 착수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'연안침식 정밀조사' 대상지로 화성 궁평리 등 6개소를 새롭게 선정하여, 총 12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.

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을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다. 정밀조사 대상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변 관측 외에 해역관측*, 수심측량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침식현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더욱 과학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* 파도가 육지에 가까이 올 때 부서지는 지대(쇄파대) 부근의 영상 분석을 통해 해빈류(바람에 의한 파도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흐름), 파랑(파도 높이, 주기, 방향 등) 등 추출

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, 연안침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안정비 사업의 시급성이 높은 6곳*을 새롭게 선정하였다.

* 화성 궁평리지구, 거제 망치지구, 경주 전동지구, 영덕 백석~고래불지구, 고성 봉수대~삼포~자작도, 고성 초도지구

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30개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침식, 침수 등 재해위험이 증가하고 있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연안침식 정밀 조사를 통한 과학적 대응방안을 마련·적용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항만국	책임자	과 장	김원중 (044-200-5980)
	항만연안재생과	담당자	사무관	정영제 (044-200-5977)

참고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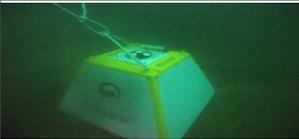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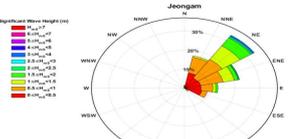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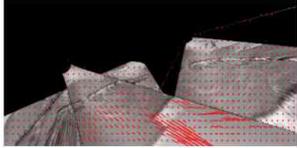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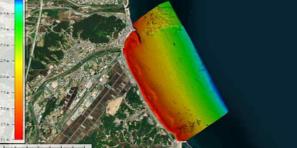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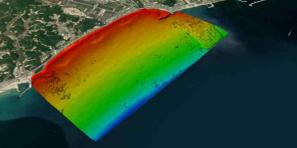
연안침식 정밀조사

□ 사업개요

- (목적) 연안정비사업 시행예정 지구 및 연안침식 심각지구의 침식 원인 규명 및 연안정비사업 효과제고를 위한 정밀조사 시행
- (시행근거) 「연안관리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정밀조사 실시

□ 조사내용

- (대상지구) '22년 연안보전(침식)사업 예정지구 6개 지구*
 - * (고성)마차진·대진, (속초)영랑동해안2·장사, (양양)정암, (울진)덕신, (영덕)남호, (부산)송정
- (조사항목) 정밀 지형·수심 측량, 연안관측망(파랑·해빈류) 구축

구분	조사내용	조사방법	조사성과
파랑 모니터링	착저식 파랑관측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연안 파고, 파향, 파주기	 파랑관측	
해빈류 관측	비디오 영상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넓은 해역의 해빈류 관측 및 분석	 해빈류관측	
수심측량	멀티빔(싱글빔)을 활용하여 대상 연안 전면 해역의 정밀 수심측량으로 해저지형 공간적 변화를 파악	 멀티빔 수심측량	
지형측량	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Lidar 정밀 지형 측량으로 대상 연안의 해안선 및 해빈 변화를 파악	 드론라이다 지형측량	

< 연안침식 정밀조사 >



□ 위치도

